

□ 제17차 定期總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2월 9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회의실에서 17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의 大學 運營方向을 논의하고 '92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9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였다.

제 1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에서는 “大學發展研究委員會 운영상황 보고”(송실대 趙 要翰 총장), “현행 大學總長 選出制度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경남대 朴在圭 총장), “대학교육 改革의 과제와 大學의 자세”(전북대 金 手坤 총장)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 2부 총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大入 不正事件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 定款을 개정(제 6조의 2 신설: 會員의 징계)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대학에 대하여는 自律規制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93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國·公立大學 총장협의회, 私立大學총장협의회 활동지원금 및 會長團 대외활동지원비 등을 신설하고, 회비징수방안에 관한 논의에서는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회비의 差等引上案을 격론 끝에 표결로써 통과시켰다(국·공·사립 공히 5%를 일률 인상하되, 사립대학은 '93년도에 한하여 '92년도 국가 재정지원액의 0.3% 안팎의 회비를 특별회비로 징수토록 함).

제 3부 대학 현안문제 협의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分科別로 나누어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총회 시작 전 “양심수들의 軍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학생들”과 “전국 대학 제적생 復籍 추진위원회” 명의로 유인물을 소속 대학생들이 배포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 협의회 회원대학간 自律規制를 위해 통과된 정관 개정 내용과 국·공·사립대학 分科別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율규제(조치) 강화 (定款 제 6조의 2 신설)

第 6條의 2(會員의 징계) ① 會員으로서 이 協議會의 目的에 背馳되는 行爲를 하거나, 大學의 名譽와 社會的 信賴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3年 以下의 期間을 정하여 資格停止를 하거나 警告를 할 수 있다.

② 資格이 停止된 會員은 第 6條의 1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義務가 停止된다.

③ 징계결과는 公開하고 教育部長官에게 通報한다.

- 가칭 “大學 倫理委員會”를 구성하여 자체 정화노력을 제고하고, 학사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大學 評價委員會를 신설하고, 대학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 분과별 협의 주요내용

• 國·公立 分科

- 국·공립대학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對 政府 건의서(案)을 우리 협의회가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제출토록 함
- 이를 위해 張仁淑 학장(한국방송통신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私立 分科

- 기존의 사립대학협의회는 친목모임의 성격이 짙으므로, 국·공립대학협의회와 같이 이사회에 조직의 결성을 정식 요청하여 승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사립대학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를 설치하되, 기존 사립대학 모임 회장단을 포함한 6명 정도의 준비위원회에 회칙 및 구체적 협의내용 등을 위촉함(준비위원: 배재대 李聖根, 홍익대 李勉榮, 동국대 閔丙天, 경남대 朴在圭, 성균관대 張乙炳, 원광대 金三龍, 서강대 朴弘 총장)

□ '94학년도 大學別 本考查

실시에 관한 세미나

우리 협의회는 2월 19일 여의도 63빌딩 엘리제룸에서 새 대입제도 도입과 함께 치러지는 대학별 본고사 실시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대학별 고사의 측정영역, 운영 및 관리방안, 국어 문제의 출제유형 및 성적산출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대학별 고사를 치를 예정인 전국 38개 대학의 교무처장과 입시관리 책임자들이 주로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거의 13년만에 부활된 대학별 고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준비사항, 대학간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의 시간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 대학별 고사 실시예정대학의 본고사 문제 출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원연수 △ 고등학교 교사연수 △ 타 대학과의 연계출제를 위한 문제은행 운영 △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권위 회복 △ 입시원서 통일방안을 마련키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우리 협의회 차원의 약속이 있었다.

세미나 주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

● 대학별고사가 지닌 의의와 시행원칙(白忠鉉 서울대 교수): 대학별 고사는 실력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엄정하게 구별해 내는 변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되는 대학별 고사는, 따라서 균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치뤄지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아야 하며, 주관식문제를 위주로 특수영역 과목보다 기초과목을 우선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별 고사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입시열을 교육열로 전환시키는 데 최선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대학별 고사의 기능과 측정영역(全成進 고려대 교수): 대학별 고사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문제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의 요구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출제 내용과 방식은 가급

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지식과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고차적 정신능력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렵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정답률을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조정하여 대학의 이념과 목표, 개별 대학의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해 수학능력시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요 교과목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별 고사의 운영 및 관리(高翔龍 성균관대 교수): 대학별 고사 출제본부의 가동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약 3천 2백만 원에서 4천 7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본고사 진행기간은 원서접수로부터 최종등록마감까지 45일 정도 걸리며, 고사일에서 합격자 발표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될 것이다.

대학별 고사의 출제방식은 대학의 독자적 출제, 다른 대학과의 연계출제, 외부 평가기관 출제의뢰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방안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므로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대책 등을 각별히 마련하여야 한다.

● 국어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俞平根 서울대 교수): 대학별 고사 국어과목 시험에서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을 수행하고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요약', '논술' 등을 출제해 봄직하다.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유형 I: 지문제시 뒤 8개 안팎의 문항에 대한 단답형 또는 서술형 답 요구: 배점 40%)은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요약'(유형 II: 2백자 원고지 12장 안팎의 지문을 3장 분량으로 요약: 배점 30%)은 글을 통하여 남의 생각과 사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논술'(유형 III: 2백자 원고지 8장 안팎의 분량으로 90분 안에 씀: 배점 30%)은 설정된 주제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정확하고 조리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